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석양은 목포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소문난 인증샷 포인트다.

<목포시 제공>

정원박람회·비엔날레서 해상케이블카까지 다 누린다

2023 전남 방문의 해
이번엔 어디로 갈까

<3> 전남 문화누리카드 활용법

12만 6000명에 연간 11만원 발급
전남 1700곳, 전국 2만5000여곳 사용
축제 입장권 구매서 관광명소 입장 가능
하반기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도입
가맹점 적은 섬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

※ 경제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A씨는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모처럼 봄 나들이를 즐길 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최근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보고 영화관을 찾은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광주비엔날레를 가자고 하고 아이들은 야구장에 가자고 졸라 결국 아이들 뜻을 따르기로 했다. A씨는 최근 발급된 문화누리카드 덕에 이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겼다.

봄꽃들이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다. 순천만정원박람회(4월 1일~10월 31일), 정산도 슬로걷기축제(4월 8일~5월 7일),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4월 20일~22일), 구례 지리산남약제(4월 20일~22일), 고흥 우주항공축제(4월 21일~23일), 화순 고인돌축제(4월 21일~30일), 함평 나비축제(4월 27일~5월 7일), 보성 다향대축제(4월 29일~5월 7일) 등 전남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길 축제도 많다.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여행 등 문화 생활을 마음껏 즐기기에 부담스럽다. 이들에겐 '전남 방문의 해'라고 전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탄 세상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전남에만 1700곳, 전국 2만 5000여곳에서 사용=전남도가 '문화누리카드'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 향유를 즐길 기회를 갖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次上位) 계층 등 저소득층 지역민들도 부담 없이 전남 곳곳을 찾아 여행과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카드다. 취약계층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향유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12만 6000명이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139억원(국비 98억원, 지방비 41억)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멘소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22개 시·군의 독특하고 색다른 관광상품과 '가족만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전남의 '핫'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우선, 전남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연일 관광객이 밀려오는 순천만정원박람회 입장권도 구매할 수 있고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축제장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도 지원하고 있다.

목포나 여수에서 해상케이블카를 타거나 광양와인동굴을 둘러볼데도 문화누리카드로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인생샷 명소인 순천 드라마세트장과 신안 퍼플랜드도 문화누리카드로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현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

드 레일 패스'도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문화누리카드로 KTX, 고속버스, 여객선 이용도 가능해 전남 전체의 관광지로 이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분야별 정보와 할인 혜택 등은 문화누리카드(www.mnuri.kr)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 충전해주고 찾아가 나눠주고=저소득층 주민들의 문화 복지 차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반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남도가 카드 활성화를 위한 '문화보부상', '문화택배', '서로서로 문화도움' 등의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문화보부상은 이동식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들이 '찾아가는 장터' 식으로 신안·완도지역 섬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적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서로서로 문화도움'처럼 아예 문화체험단체가 직접 복지회관·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공연·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주민들은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 여행 등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권리구제서비스' 운영,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적으로 인소문이 나면서 최근 가장 '핫'한 관광지로 떠오른 순천만정원박람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문화누리카드로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나들이철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곡성 유명 관광지 기차마을도 문화누리카드로 둘러볼 수 있다.



광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 광양와인동굴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제공>